

순간의 기록으로 이끄는 사진의 세계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살펴보는 사진이론서들

사진을 순간의 기록 또는 빛의 예술이라 한다. "사진은 또다른 사회적 언어"라는 한정식(중앙대) 교수의 말은 사진의 기능성을 대변해 준다. 또한 사진은 피사체를 중심에 두려는 기록적 가치와 더불어 인간의 심성까지 표출하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우리나라에 사진술이 도입된 것은 19세기 초반. 사진기는 너무 귀한 것이어서 일반인에게는 경원의 대상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살사건' 등을 통해 사진에 대한 인식은 확산된다.

인식의 확산은 단편적인 사진찍기 행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60년대로 접어들면서 예술성을 가미한 사진찍기가 시작되고, 동아콘테스트, 국전 등을 통해 신진작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늘날 급속한 기술 발전에 힘입어 누구나 하나쯤 가지게 된 사진기. 일상에 너무 가까이 있어 오히려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지만 디지털 사진, 비디오아트 등 날로 다양해지는 표현양식을 통해 사진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진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보인다. 사진사(寫眞史)에 대한 변변한 연구서 하나 없는 것이 그 반증이다. "거대 자본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사진계의 지난한 노력을 예쁘게 봐달라"는 이규상(눈빛출판사 대표)씨의 말에서 인화되지 않은 사진계의 필름을 보는 듯싶다.

98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국내에서 출간된 이론서들을 학계·사진작가·출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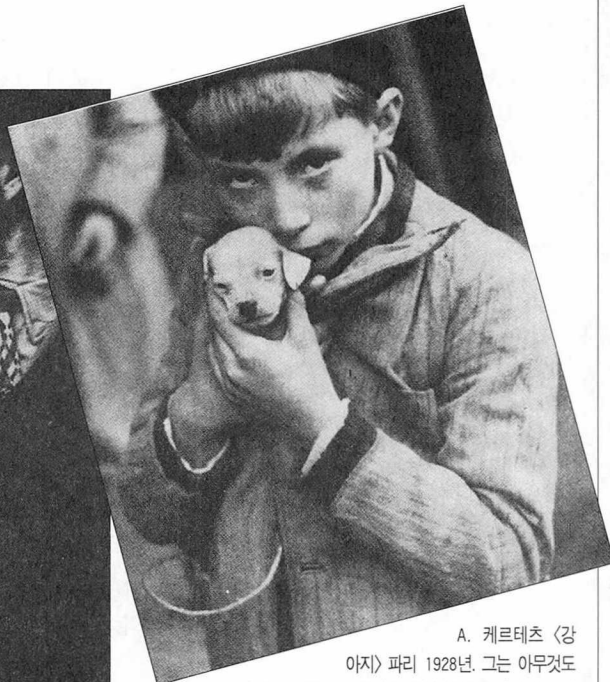
사진의 변모

한정식 지음

저자가 직접 겪었던 영상체험을 바탕으로 사진의 근대성과 현대성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사진과 거울의 차이, 현실과 영상 사이 등 까다로운 서론을 통해 '사진은 곧 의미의 가시화 작업'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윌리엄 클라인 <모스크바에서의 5월1일> 1959년. 사진가는 러시아사람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준다.



A. 케르테츠 <강아지> 파리 1928년. 그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다. 내면을 향해 자신의 사랑과 두려움을 붙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이다.(카메라 루시다) 중에서)

내고 있다. 또한 현대사진의 특징으로 시간성의 추구, 표현매체로서의 기능적 확장, 휴머니즘의 소멸, 탈장르의 복합적 영상 등을 꼽은 뒤 사진이 강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제와 형식에 대한 사진가의 고뇌 어린 탐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눈빛/A5신/256면/8000원

현대사진의 전개와 비평

홍순태 지음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 사진의 장르와 현대 사진작가를 분석하고 비평했다. 아울러 많은 사진 자료들도 함께 실었다.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진인들을 위한 길라잡이. 주요 내용으로 뉴 다큐멘터리, 뉴 저널리즘, 뉴 시퀀스, 뉴 웨이브, 포토그래피, 포스트 모더니즘 등이 들어 있다.

신문문화사/B5/274면/29,500원

한국신문사진사

최인진 지음

구한말에서부터 해방전까지 신문사진의 변천사와 사진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정리한 역사서. 일제시대 우리 신문사진이 어떤 정신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대정신을 담아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저널리즘의 시각적 확장, 매일신보와 신문사진, 사진화보, 일장

기 말소 사건, 취재장비와 표현 방법의 변천 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열화당/B5/320면/23,000원

세계사진가론

육명심 지음

각자 특색있는 사진을 찍으면서 세계 사진사의 발전에 기여했던 작가 35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위대한 사진가란 '사진을 기술적으로 잘 찍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당대의 역사적 좌표를 찍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사진은 단순한 표현행위의 결과가 아닌 시대에 대한 발언이요, 대변인이라는 것이다. 명망 있는 작가를 통해 사진의 역사와 시대 의식의 전개 양상을 보여 주고자 했다.

열화당/A5신/248면/7000원

밝은 방 (1~5)

사진학회 엮음

사진학회에서 무크지 형식으로 펴낸 자료집 5권. 연구 논문이 중심을 이루지만 사진 자료도 함께 실려 있다. 1권에는 사진 프레임에 관한 연구 등이, 2권에는 리얼리즘 사진의 비판적 고발 등이 수록되어 있다. 3권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진의 의미 등이, 4권에는 현대예술의 양상과 한국 사진의 과제 등이 들어 있고, 마지막 권에는 서울의

현대 생활과 문화유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열화당/A4/각 120면 내외/각 12,000원 내외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유경선 지음

포토 매니아들이 대거 등장한 것에 초점을 두고 카메라·렌즈·필터·플래시 등 사진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와 작동 기법에 대하여 기술했다. 카메라의 자동화에 따른 첨단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촬영대상에 따라 구분 또는 조정되는 사진기법을 정리하고 해설하면서 국내작가의 작품을 참고자료로 덧붙였다.

미진사/B5/320면/18,000원

사진 촬영 길라잡이

송기엽 지음

사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진 매니아들을 위한 사진 테크닉 이론서. 필름의 선택에서부터 노출·구도·표현 방법에 이르기까지 촬영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테크닉을 계절·시간·장소·상황별로 세분화하여 소개하고 있다. 각종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컬러사진 하나 하나에 촬영 요령과 촬영데이터, 필름 감광도까지 설명하고 있다.

평화출판사/B5/96면/12,000원

말하기의 다른 방법

존 버거 · 장 모르 지음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씌어졌다. 1부에서는 한 장의 사진이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나 모호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2부에서는 사진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적었다. 3부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느 농촌 여성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1백50장이 실려 있고 4부에서는 3부에서 이야기 하려던 내재된 이론적 함의들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 부에는 농부들의 거친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눈빛/A5신/288면/8500원

현대사진의 이해

고쿠보 아키라 지음

현대사진의 대표적인 작가들을 시대별 또는 계파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작품들이 제작된 배경 설명과 함께 사진적 맥락을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군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넓은 조망적 시각에서 현대사진을 전망하려고 했다. 현대사진의 뿌리, 사진과 미술의 경계선에서 태어난 개념사진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으로 현대사진작가들이 작업을 통해 사진의 구조를 해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눈빛/A5신/238면/7500원

사진가의 사진론

나탄 라이언스 지음

20세기 사진예술을 대표하는 사진가 22인이 자신의 작품과 사진예술에 관련해 쓴 글을 모아 번역했다. 사진가들이 자신의 작품과 예술에 대해 논한 글이라고 해서 주관적인 체험기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 회화와의 끊임없는 경쟁, 자극, 협력을 거쳐 독자적인 자리를 굳힌 사진 예술의 모습이 사진가들의 발언 속에 각각 삼투되어 있다.

눈빛/A5신/226면/6000원

카메라 루시다

롤랑 바르트 지음

사진을 '약효없는 메시지'로 정의한 저자가 이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회화, 영화를 포함하는 일체의 다른

영상과 구별되는 사진의 본질적 특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밀교적인 모성숭배를 통해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는다라는 줄거리가 있는 책이다. 사진의 특성, 사진의 분류 가능성, 모험으로서의 사진, 밝은 방, 길들여진 사진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열화당/A5신/128면/4000원

사진의 역사

뷰먼트 뉴홀 지음

초창기 사진술에서부터 조류 및 전개상에 대하여 총괄적인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다게르식 은판사진에 색채를 입혔던 것에서부터 금세기로의 전환기 시대에 구사했던 오토크롬을 거쳐, 오늘날 색채사진 작업까지 사진술의 변천사를 다루었다. 영상을 찾아서, 예술사진, 동작의 정복, 형상의 탐구, 순간적 사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열화당/A5신/416면/11,000원

사진의 제국

앙드레 루이에 지음

사진이 프랑스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어떻게 관련을 맺어 왔는가 파헤친, 파리학파를 대표하는 저자의 역저. 사진의 출현과정, 산업사회에서의 사진의 위치, 사진과 세계의 관계 등을 사회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밖에도 예술산업의 탄생, 사진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산업, 새로운 사회적 개입 수단, 초상사진의 미학 등의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열화당/A5신/194면/6000원

사진의 세계

미첼 비즐리 지음

초보자에서 숙련된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사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 이론서. 기본적인 구도 원칙에서부터 카메라 사용법, 노출 측정, 컬러 사용법, 인물, 자연, 풍경, 야생동물 등의 촬영방법 뿐만 아니라 특수효과, 광선조정 등에 의한 이미지 메이킹까지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및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데 실제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미진사/A4/480면/28,000원

— 오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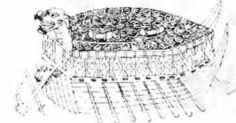
거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누군가 찾아야 할 도둑맞은 우리 역사

한반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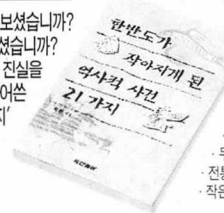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우리 땅은 한반도가 아닌란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닌란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은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제 거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넓혀드립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편이한 두 개의 진리장성
- 두 얼굴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으로만 봐 찬 조선의 금서목록
- 작은 거리를 고백하는 깨달음 등...

박 현 지음 / 7,000원

술술 읽으면 쑥스러오게
풀어쓴 현대철학 이야기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읽기 전에는
아는 척하느라
힘들었다!

필수 핵심용어 30가지 완벽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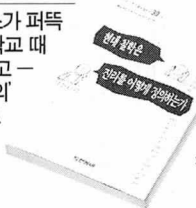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마르크스/잉여가치
- 니체/권력의지
- 프로이트/무의식
- 소쉬르/기표와 기의
- 후설/판단중지
- 레닌/악한 고리
- 융/집단 무의식
- 아인슈타인/상대성
- 케인스/유효수요
- 비슐라르/인식론적 단절
- 루카치/계급의식
- 하이데거/현존재
- 그람시/해계모니
- 라캉/욕망
- 아도르노/계몽
- 사르트르/자유
- 브로델/장기 지속
- 비트겐슈타인/언어 게임
- 하이젠베르크/불확정성
- 레비스트로스/심층구조
- 바르트/신화
- 알튀세르/이데올로기
- 쿤/패러다임
- 리오타르/포스트모던
- 들뢰즈와 가타리/욕망
- 푸코/지식-권력
- 보드리야르/시뮬라시옹
- 허버마스/의사소통
- 데리다/해체
- 부르디외/이비투스

읽은 후에는
아는 척하느라
바빠졌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이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을 위해.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경태 지음 / 6,800원